

목차

1. 개요 (Overview)	3
2. 세계의 기원 (7 일의 이야기).....	3
3. 천사의 탄생.....	4
3. 인간의 탄생과 아카시아 흐름	4
4. 외우주의 연결과 대홍수 [기술적 배경].....	4
5. 정화의 시대 [게임 시간대].....	4
5.1 개요	4
6. 세력과 월드 [공간적 배경].....	4
6.1 월드맵	4
6.2 기후와 식생에 대한 분류.....	4

문서업데이트 기록

1. 개요 (Overview)

- 본 문서는 플로로스 세계관의 첫번째 작품, [세실리아: 하늘의백합]의 세계관 설정에 대한 문서이다.

[플로로스 세계관에 대한 설명 문서 노선링크](#)

2. 세계의 기원 (7일의 이야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둠뿐인 세계에서 다아트¹의 피조물이 깨어난다. 다아트가 세상을 구성하기 위해 만든 창조물의 이름은 케테란²으로 앞으로 다아트를 도와 이 세계를 관리하고 가꾸게 될 정원사이다.

첫째 날, 케테란은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어둠속에 던져져 있었다. 하지만 케테란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이 세상을 가꾸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말이다. 케테란은 빛으로 어둠을 밝혔다. 케테란은 공중에 둥둥 떠 있었고 그 주위를 빛이 둥글게 감싸고 있었다. 케테란은 빛을 넓혀 이 세상을 밝혔다. 빛은 끝없이 나아갔으며 이 우주의 끝까지 퍼져 나갔다. 세상을 밝힌다는 하나의 과제를 마친 케테란은 이내 힘을 채우기 위해 잠에 들었다.

둘째 날, 케테란은 다시 눈을 떴다. 눈을 뜨자 케테란은 땅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은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땅이었다. 발을 디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땅에 발을 대고 서 있는 것이 훨씬 편했다. 케테란은 곧바로 땅을 넓혔다. 땅은 저 멀리 뻗어 나갔다. 땅은 속에서부터 채워지며 우주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둥그란 구가 되었다. 케테란은 물로 땅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내 물이 땅을 뒤덮으며 바다가 생겼다. 세계의 기틀이 다져진 것이었다. 케테란은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다시 잠에 들었다.

셋째 날, 케테란은 다시 눈을 떴다. 케테란은 이 세계를 채우기 위해 창조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록 우주만큼의 크기는 아니었지만 이 대지와 바다 그리고 하늘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뻔했다. 케테란은 고민 끝에 자신이 잠들어도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하며 세상을 채울 조수를 창조했다. 그 조수의 이름은 말쿠트³였다. 말쿠트는 땅의 영양분과 빛 그리고 물로 살아가는 생명체였다. 말쿠트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창조물들로 세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케테란은 말쿠트의 옆에서 다른 생명체들을 만들다가 이내 잠에 들었다.

¹ 다아트:

² 케테란:

³ 말쿠트

3. 천사의 탄생

3. 인간의 탄생과 아카시아 흐름

4. 외우주의 연결과 대홍수 [기술적 배경]

5. 정화의 시대 [게임 시간대]

5.1 개요

5.2 정화의 시대

6. 세력과 월드 [공간적 배경]

6.1 월드맵

6.2 기후와 식생에 대한 분류

6.3 문화권에 대한 분류

6.4 국경에 따른 분류
